

# 광주 교육비 상승률 전국 최고

## 최근 8년간 49% 올라 가계 큰 부담 식료품·교통비 등 폭등 물가 압박도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의 교육비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교육비가 최근 8년간 1.5배나 오른 데다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상승률이 전국 7대도시 가운데 3번째로 높아, 지역민들이 '물가 압박'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내놓은 '최근 8년간 소비자물가 주요 도시별 변화상'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광주의 교육비 상승률은 48.6%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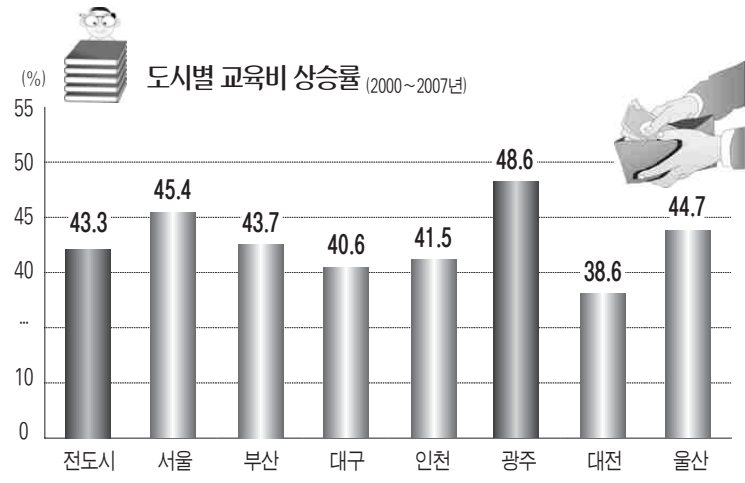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43.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45.4%) ▲부산

(43.7%) ▲대구(40.6%) ▲대전(38.6%) 등으로 광주의 교육비 상승폭을 밀붙였다. 특히 광주는 학부모들이 실제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이 교육비 상승률에 비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8년 전인 2000년 교육물가지수가 75.4로 전국 평균(77.6)을 밑돌았으나 그 이후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중·고교생 등 중등교육비가 8년간 58.3%나 뛴 가운데 대학과 대학원, 유치원·초등학교 교육비도 각각 52.6%, 45.0% 올랐다.

납입금의 경우 유치원이 8년새 95.7%나 올랐으며, 국공립대와 고등학교 납입금이 각각 79.0%, 30.6% 상승했다.

사교육비도 크게 치솟았다. 대입단과학원비가 115.7%나 오른 것을



비웃, ▲보습학원비(37.8%) ▲피아노학원비(41.4%) ▲가정학습지(28.5%) ▲미술학원비(18.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또 최근 8년간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도 크게 올라 서민 가계를 압박했다. 식료품의 경우 8년새 35.6% 상승한 가운데 육류(75.5%)와 과일(70.2%), 채소(39.6%) 등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교통비는 같은 기간 평균 28.0% 상

승했으며, 버스 등 육상이용료(57.9%), 철도이용료(40.4%), 항공 및 여객선이용료(38.1%) 등이 모두 올랐다.

이에 따라 광주는 8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3%에 달했다. 이는 서울(25.0%)과 울산(24.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고물가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아 쏘울, 필 소 굿!”

(KIA SOUL, Feel so good!)

### 한국 방문 美 딜러들 디자인·신사양 호평 쏟아져

“쏘울, 필 소 굿! (SOUL, Feel so good!)”

기아차 미국법인 관계자들과 딜러들이 신개념 CUV 쏘울(SOUL)의 개성만점 디자인과 신사양을 직접 보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3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40명의 기아차 미국 판매책임자 및 딜러 방문단은 로체 이노베이션(수출명 옵티마), 모하비(수출명 보레고) 등이 생산되는 화성공장을 견학한 데 이어

양재동 본사를 방문해 내년 미국시장 런칭예정인 신차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들었다. 이어 남양연구소를 방문,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쏘울·포르테·로체 이노베이션·모하비 등을 시승했다. <사진>

마이클 스프라그 신임 기아차 미국판매법인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쏘울은 기아차 브랜드를 한 단계 높여줄 기대주”라며 “쏘울은 미국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던질 신차”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쏘울의 미국시장 신차 붐 조성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인쇄 매체 패션브랜드들과의 제휴마케팅 등을 통해 독특한 디자인과 신사양들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미국시장에 본격 런칭될 쏘울에는 1.6 및 2.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며 싸이언 xB 등과 미국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기아차는 내년 미국·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에 쏘울을 런칭하고 연간 10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고용포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와 광주시가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제 14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 소매 유통업체 체감경기 둔화 지속

### 광주상의 4분기 전망조사

올해 4·4분기에도 광주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RBSI, 기준치=100)는 '98'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지난 3·4분기(95)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국내의 경기둔화, 물가상승 등이 맞물려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8.6%, 악화된다는 업체는 30.2%, 불변은 41.3%로 집계돼 경기악화를 전망한 업체가 더 많았다.

소매업체별로는 백화점(133)의 경우 연말특수 등에 힘입어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편의점(97)과 슈퍼마켓(92)은 고전할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나주 남양유업 호남공장 본격 가동

### 하루 300t 생산 능력

남양유업은 26일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에 '남양유업 호남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천안·공주·경주·천안 신공장 등 기존 4개의 공장에 이어 5번째 공장을 확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충하게 됐다.

900여명이 투입된 호남공장은 3만 1천평 규모로, 하루에 300t 규모의 생산능력과 첨단 무인자동차 시스템을

갖췄다. 이 공장은 의약품제조기준(GMP)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세계 선진 유가공협회 인증설비를 도입하고 유유내 산소를 제거해 맛을 개선하는 최고의 품질안전 시스템을 갖췄다고 남양유업은 설명했다.

호남공장은 '맛있는유유 GT', '아인슈타인유유' 등과 '불가리스', '이오', '남양요구르트' 등의 발효유 제품을 생산하며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수출의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光銀 신입 행원 25명 채용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역 우수인재 등용을 통한 경영 다각화를 위해 25명 가량의 정규직 신입 행원을 채용한다.

이번 신입 행원 선발은 지원자격에 연령 및 전공 제한이 없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10일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이용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성·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1,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문의 062-239-5703.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양제철, TWB 제품 생산 5년만에 총 2000만매 돌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TWB 제품 생산누계 2천만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그동안 자동차사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기술 적용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고강도와 고성형성을 갖춘 TWB 제품을 개발, 판매해왔다.

TWB공장은 첫째 21만매를 생산하던 수준에서 32대로 급성장해 올해만 벌써 530만매를 생산했다. 이는 2003년 4월 조업을 개시한지 5년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로, 꾸준한 생산성 향상과 설비 개선활동 등에 힘입은 결과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국내의 18개 자동차사의 56개 차종에 TWB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TWB제품을 이용해

자동차용 도어를 만들 경우 무게가 10%가량 감소해 경량화에 의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차체의 안정성과 자동차 제조공정에도 유리해 자동차 업계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TWB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국내는 물론 인도·중국 등의 주요 자동차 업체와 다양한 EVI(고객공동 제품개발)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새만금·군산산단 개발 시행사 한국농촌공사 선정

한국농촌공사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1천870ha) 개발 시행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여 한국농촌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했다.

농촌공사는 이날 시행경험과 재무건전성, 외자유치능력, 원가절감 방안, 사업기간 단축 등 7개 평가항목 가운데 방조제 축조 기술과 준설토 확보·활용 등 시행경험과 소요자금 조달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조만간 농촌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가깝고, 편안하고, 이쁜다는 곳!!!

부동산 전문회사

#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원부모와 당신위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7년 역사의 극락전 부동산 전문회사 남골당! 02-239-0100, 02-239-4500, 02-779-9100

광주·전남 기능장학

#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 기발

초슬림!!

귀하의 복위와 만족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062-573-8888, 573-8822